계단 골목\_S 하우스는 사거리 대로변에 있는 자그마한 단독주택이다. 대지 면적은 약 16평으로 도시형 한옥의 한 필지에 해당한다. 집은 어머니, 딸 셋, 흰둥이(강아지), 총 4명+1의 구성원을 위한 공간이다. 이 땅은 어머니가 서울로 시집와 처음 둥지를 튼 곳이었다. S 하우스를 짓기 전에는 도시형 한옥이었는데, 이곳에서 살다가 사거리 모퉁이를 돌아 멀지 않은 다른 도시형 한옥으로 이사하고, 원래 집은 세를 주고 살아오셨다. 그렇기에 S 하우스에는 과거에 살던 터전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마음과 어릴 적 살았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컸다. 가족의 요구 사항은 방 4개와 거실과 주방, 욕실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였지만,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넉넉지 않아 이 한계를 풀어내는 일이 우선이었다. 대로변에 위치한 필지의 특성상 현관의 위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도 숙제였다. 한옥에서의 한 칸을 한 방 사이즈로 기준을 잡고, 각 방의 높이는 2.1m로 계산했다. 정북일조사선 9m 높이에 맞춘 뒤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간을 잡다 보니 반지하가 생겼다. 현관 입구는 자연스럽게 반 층 내려가 위치하게 되었다. 한 칸의 방들이 수직으로 쌓여 올라가 그 사이사이를 계단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외장재에는 주변 벽돌 건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붉은 벽돌을 사용했고, 바깥 대문, 난간, 창틀 등 금속 마감도 붉은 벽돌과 어울리는 광명단으로 마감했다. 만약 S 하우스를 설계하며 작은 대지 면적을 단점으로 생각하여 주변 필지와 합필하는 식으로 개발했다면 지금의 풍경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뒤 사거리 모퉁이 집이 겪을 또 다른 변화가 자못 궁금하다. 글 김효성



Stairway Street\_S House is a small house located on the street-side of the intersection. The site is about 52m², falling into the category of the typical urban Hanok in terms of plot size. The house is a space for a mother, three daughters and a puppy. This site is where the mother settled for the first time in Seoul, after her marriage. Before S House, the house was an urban Hanok. She later rented the place out and moved to another urban Hanok not far from the corner of the intersection. S House bears significant meaning in that she is building a new house around her past home and physically moving back home. The family asked for four bedrooms, a living room, a kitchen, and bathroom. Though they may seem like the most rudimentary of demands, the site was not that large to begin with. Overcoming such spatial limits was our first task. Another was to decide on where the front door should be, considering that this is a street-side house. With each square of the Hanok considered a room, we calculated the height of each room to be 2.1m. By setting the Limits on Hights of Building for Securing Sunshine on the northern and organizing the space from top to bottom, we ended up with a semi-basement structure. The entrance naturally was placed a half floor down. Each room was stacked vertically, and stairs in between are connecting them.

On the outside, red bricks were used to make the house blend in with the surrounding brick buildings. The metal finish on the outside gate, guardrails, and window sills was also done with red lead to match with the red bricks. If we though that the size of the plot was a flaw and designed S House to be integrated into the adjacent plots, then we would not have achieved the scenery we see now. written by Kim Hyosung

설계: 건축사사무소 사무소효자동(서승모) 설계담당: 김효성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4.5㎡ 건축면적: 25.75㎡ 연면적: 88.55㎡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주차: 1대 높이: 11.46m 건폐율: 47.2% 용적률: 14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치장벽돌마감 내부마감: 백색도장마감, 원목마루 시공기간: 2016. 3. ~ 12. 건축주: 이지명

Architect: Samuso Hyojadong (Seo Seungmo) Design team: Kim Hyosung Location: Samseon-dong 5-ga, Seongbuk-gu, Seoul, Korea Programme: single house Site area: 54.5m2 Building area: 25.75m2 Gross floor area: 88.55m2 Building scope: B1, 4F Parking: 1 Height: 11.46m Building to land ratio: 47.2% Floor area ratio: 142%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brick Interior finishing: white painting, wood floor Structural engineer: Eun Structural Eng. Inc.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Samuso Hyojadong Construction: Saramjoongsim Design period: Jan. - Dec. 2015 Construction period: Mar. - Dec. 2016 Client: Lee Jeem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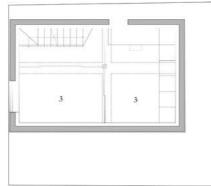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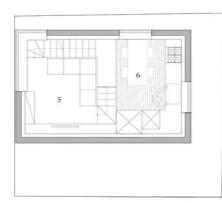


대문을 통해 집에 들어오면 먼저 작은 마당을 마주하게 된다. 이 마당 끝 왼편에 현관문이 있다. When you enter the house through the gate, you will encounter a little courtyard first. A front door of the house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end of the 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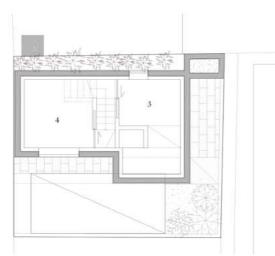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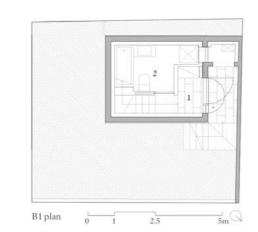
3F plan



2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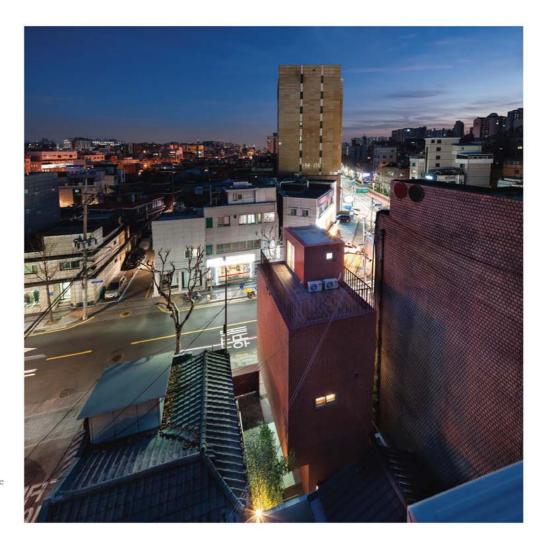
1F plan







왼쪽부터 2층의 거실과 주방, 3층 방 모습이다. 한 칸의 방들이 수직적으로 쌓이고, 그 사이사이를 계단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From the left, each picture is contained views of a living room and a kitchen on 2F, and a room on 3F. Each room was stacked vertically, and stairs in between are connecting them.



S 하우스는 16평에 그치는 작은 S 하우스는 10명에 그지는 작은 대지의 특성을 살려 계획됐다. 건물은 주변의 도시적 스케일과도 잘 융화되어 풍경에 녹아들고 있다. S House is planned to take advantage of the features of the small land that is only 52m². The building is integrated into the landscape well.